『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22
pp.479-501. ISSN : 1229-9618

經世致用 思潮의 影響을 받은 商人의 致富觀 研究
- 明淸代를 중심으로

김미랑* · 임진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와 그 특징
3.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치부관
4. 상업윤리의 확립과 경영원칙
5. 나오는 말

【초록】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 엄격한 신분사회로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계층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나, 이러한 엄격한 사회계급은 명대 상업의 발전과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에 힘입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지 사회적으로 조연의 입장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후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명 중기 이후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치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널리 받아들여져 새로운 신분계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사회적 기능 역시 중시되어 상인의 신분과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키워드】 경세치용, 치부관, 심학, 실사구시, 신상(紳商)

* 김미랑, 제1저자,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mrkim@cdu.ac.kr)
** 임진호, 교신저자,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jhim@cdu.ac.kr)

1. 들어가는 말

중국인들은 부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명 중기 이후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난한 서생보다 부자가 낫다”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 엄격하게 구분된 신분사회였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래서 지도층을 의미하는 사대부 계층은 ‘사민(四民)’, 즉 사농공상 계층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계층은 사회적으로 농민이나 공인계층보다도 더 낮은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명대 이후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던 치부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전통적인 유가의 치부론은 농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관리가 되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이외는 없었다. 그러나 명대에 들어서 도시화,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 인구의 대량 이동 및 농산품의 상품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는[1] 상업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농상호리론(農商互利論)’이 등장하게 되자, 사대부가의 사람들도 기존의 유가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상업을 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사·농·공·상 모두 ‘도(道)’앞에 대등하다”는 왕양명의 ‘신사민론(新四民論)’이 등장하여 상인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동시에 사회적 기능 역시 주목받게 됨으로써 상업 역시 중국인들의 본업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더 이상 사람들부터 경시 받는 직업이 아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고는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서 새로운 신분 질서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명청대 상인의 치부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우선 당시 사회 속에서 중국인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경세치용 사조가 상인의 치부관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송대 등장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일종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경세치용론이 명대 흥기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특징을 당시의 정치와 학풍, 서양 학문의 전래라는 관점에서 신분제도의 변화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 양상과 치부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상업윤리가 확립되게 된 사상적 배경과 상인의 경영원칙에 관한 연관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오금성 외, 『명청시대사회경제사』, 도서출판 이산, 2007.05, p.556.

2.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와 그 특징

경세치용이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유학의 한 주장으로 사상적 근원은 적어도 선진시대의 공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공자가 제창한 유가의 학문적인 지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이는 먼저 자신의 수양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논리이다.[2] 유가 사상은 사회의 동란과 '예악'이 붕괴되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통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일종의 '입세철학(入世哲學)'이자 현실주의적인 학문이었다.[3] 이와 같이 유가사상은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경세적 전통을 갖추고 있어 후대 통치자들은 물론 중국의 지식인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나라 이래 유가사상은 역대 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 전통사회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근간이 되었으나, 송대에 이르러 정치적인 위기와 현실적인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정주이학(程朱理學)[4]이 점차 국가적인 현실적 문제보다 '수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자 현실적 의미에서 멀어져 점차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심학(心學)'[5]이 명대에 이르러 다시 흥기하게 되었는데, 심학은 마음을 수양하고 실천에 의하여 성인에 가까워지려는 사상으로, 우주의 근본이 '심'에 있다고 여겨 능동적인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주이학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논의만을 주장했던 폐단을 보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지식인들은 공소(空疎)한 정치와 학풍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통해 격화되어 가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세치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 원인

2) 송갑준, 「논어의 군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 『대동철학』, 제32집, 대동철학회, 2005.12, p.1.
3) 오만종,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020.12, p.405.
4) 정주이학은 성리학의 또 다른 명칭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송대 유학이란 뜻에서 '송학', 송과 명에 걸친 학문이라고 해서 '송명리학'이란 명칭으로도 불리며, 이외에 '신유학', '정주학', '정주 성리학'으로도 불리운다.
5) 중국의 정주학과 대립하는 '심즉리(心卽理)'의 학문 체계. 넓은 의미로는 마음을 수양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유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송 때의 육상산(陸象山), 명 때의 왕양명이 제창한 학문을 말한다. 곧 마음을 수양하고 실천에 의하여 성인에 가까워지려는 사상이다.

(1) 정치와 학풍에 대한 반작용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명대 이전의 정주이학이 '수신(修身)'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부응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한 지식인들은 정주이학에 대한 비판과 '심학'의 수용이라는 과정 속에서 진부한 학풍을 반대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제창하였다. 왕정상(王廷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근래 세상물정에 어두운 유학자들이 장차 국가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여 활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다만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만을 추구한다.(近世好高迂腐之儒, 不知國家養賢育才將以輔治, 乃倡爲講求良知.)[6]
>
> 선비는 오직 실학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士惟實學可以經世矣.)[7]

라며 당시의 공소한 정치적 풍토와 학풍을 비판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주장하였다. 특히 명 후기 동림당(東林黨)[8]의 지식인들은 학문체계 속에서 직접 경세치용을 제창하였는데, 동림당의 대표적 인물인 고헌성(顧獻成)은

> 지금 조정의 관리가 되고자 하는 무리는 황제를 섬기고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경치 좋은 곳에 삼삼오오 모여 성명(性命)과 덕의(德義)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보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논하는데 관심을 두며 군자로써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官輦轂, 志不在君父, 官封疆, 念頭不在百姓上; 至於水間林下, 三三兩兩, 相與講求性命, 切磨德義, 念頭不在世道上, 卽有他美, 君子不齒也.)[9]

라고 당시의 시대상을 비평하였다.

또 대내적으로 숭정(崇禎) 3년(1630)에 섬서(陝西) 지역에서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

---

6) 王廷相, 『王氏, 家藏集·王廷相集』, 中華書局, 1989, 재인용: 楊緒敏, 「明代經世致用思潮的興起及對學術研究的影響」, 江蘇省社會科學, 第1期, 2010, p.235.

7) 王廷相, 「送涇野呂先生尚寶考績序」, 『雅述』下篇卷22, 見『王廷相集』, 中華書局, 1989.

8) "동림당", 『나무위키』, 2023.11.07., https://namu.wiki/w/%EB%8F%99%EB%A6%BC%EB%8B%B9: 명 후반 17세기의 당파로 궁중에서 환관의 힘이 강해지자 관료들 가운데 나타난 반환관 세력이다. 동림서원을 거점으로 삼아 동림당 혹은 동림파라고 불렸다. 많은 유학자들이 동림서원을 찾아와 학문에 정진하면서 말기 증상을 보이던 명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렇게 되자 동림서원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당대에 이들을 '동림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9) 黃宗羲, 「東林學案」, 『明儒學案』卷58上, 中華書局, 1985.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만주 지역을 거점으로 후금을 세운 누루하치가 만력(萬曆) 46년(1618) 변방을 위협하였고[10], 동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는 왜인들이 끊임없이 출몰하였다. 더욱이 서양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이 대만과 팽호(澎湖) 등지를 점령하자, 당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흉흉해졌다.

한편 조정의 당쟁이 격화되고 명말 환관들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둬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지식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리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한다."[11]고 비난하고, "일단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민란이 일어난다."[12] 고 잇달아 황제에게 호소하였다. 특히 좌광두(左光斗), 위대중(魏大中)[13] 등의 지식인들은 환관의 극심한 폭정과 부패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도록 직접 상소하기도 하였다.

(2) 서양학문의 전래와 영향

경세치용의 사조의 흥기는 서양 학문의 전래와도 무관하지 않다. 명말 이후 마테오리치(MatteoRicci), 판토하(Diego de Pantoja), 우르시스 (Sabatino de Ursis), 디아스(EmmanuelDiaz),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등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견되었는데, 종교뿐만 아니라 천문역법과 지리, 농학 등의 서방 과학 기술도 함께 전래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도덕적인 윤리를 중시하고 문예(文藝)를 경시하는 전통적 관념에 젖어 있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학풍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양계초(梁啓超)는

>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계의 분위기도 당연히 새롭게 변해야 한다. 지금의 학자들은 대부분 역산학(曆算學)과 경세치용과 관련된 논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마테오리치, 서광계(徐光啓) 등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在這種新環境之下, 學界空气, 當然變換, 後此淸朝一代學者, 對於曆算學都有興味, 而且最喜歡談經世致用之學, 大槪受利, 徐諸人影響不小.)[14]

---

10) 撫順, 開原, 鐵嶺, 沈陽, 遼陽 등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11) 楊緖敏, 「明代經世致用思潮的興起及對學術硏究的影響」, 江蘇省社會科學, 第1期, 2010, p.236.
12) 「李三才传」, 『明史』卷232, 中華書局, 1974: 一旦衆衅土崩, 小民皆爲敵國, 風尺馳塵騖, 亂衆麻起.
13) 左光斗(1575~1625)와 魏大中(1575~1625)은 楊漣, 袁化中, 周朝瑞, 顧大章과 함께 동림육군자로 불린다.
14)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東方出版社, 1996.

라고 당시 학계의 주도적인 환경을 설명하였다.

더욱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양명학이 대두하면서 개인의 치부 활동을 인정하는 '농상호리론', '신사민론'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15] 이러한 입장은 특히 명대 중기 이후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치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신상(紳商)[16]이라는 새로운 신분계층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인들의 신분 상승과 함께 부자를 바라보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경세치용 사조의 특징

결국 정주이학이나 심학이 중국 사상사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사회와 지식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로 인해 명대 중기 이후 청대에 걸쳐 고염무(顧炎武), 황종희(黃宗羲), 왕부지(王夫之) 등의 인사들이 출현하면서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실학사조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관심은 후에 조선 후기 류형원(柳馨遠), 이분(李瀷) 등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은 실학을 추구하면서 도학파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경세치용론'의 영역을 개척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경세치용 사조는 다음의 네 가지 방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 현실적 실천 강조

경세치용 사조는 현실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고염무는

> 공자가 육경을 산술한 것은 바로 이윤과 태공이 백성을 재난으로부터 구하고자 했던 마음과 같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공리공담을 잔뜩 늘어놓는 것은 먼저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孔子刪述六經, 卽伊尹太公救民水火之心, 載諸空言, 不如見諸行事.)[17]

---

15) 나선희, 「淸代의 상인계층 - 소설 儒林外史의 계층이동모습」,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第38輯, 2008.04, p.283.

16) 紳商은 상업에 종사하면서도 유가를 숭상하며 功利와 名利를 쫓았던 계층으로 이들의 등장은 유가가 더 이상 사대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17) 王立·宋天宇, 「顧炎武經世致用思想成因探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吉林師範大

라고 표명하였고, 주지유(朱之瑜)[18] 역시

> 대인군자라 함은 천하를 담을 만한 도량을 가지고 천하와 국가, 그리고 백성들의 일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大人君子包天下以爲量, 在天下則憂天下, 在一邦則一邦, 惟恐生民之不遂.)[19]

라고 하여 천하, 국가, 백성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2) 사회적 사명감 요구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역시 당시 지식인들의 구체적인 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즉 반뢰(潘耒)는 명말의 고염무에 대해

> 그는 부지런히 뜻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자 했으나 그만 빈곤함에 찌들어 늙은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천하를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일찍이 쇠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민생과 나라를 책임진 자로서 근본에 힘써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고민하였다.(奋欲有所自樹, 而迄不得試, 窮約以老. 然憂天憫人之志, 未嘗少衰. 事關民生國命者, 必窮源溯本, 討論其所以然..)[20]

라고 묘사하며, 지식인으로서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염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안원(顔元)은 직접적으로

> 사람이 어찌 능히 천지를 주관할 수 있겠는가마는 利로써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성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人必能斡旋乾坤, 利濟蒼生, 方是聖賢.)[21]

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사명감을 언급하였으며, 유헌정(劉獻庭) 역시 "이

學歷史文化學院, 第4期, 2010.07, p.109.

18) 朱之瑜(1600~1682), 명말의 문신이자, 유학자, 문학가, 사학자. 그는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남명이 멸망한 후 청에 항복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19) 朱之瑜, 「興岡崎昌純書二首·二」, 『朱舜水集』卷5, p.101.

20) 董志先·王志宇, 「日知錄序」, 『博學智慧叢書: 好學名文』, 白山出版社, 2009.12.

21) 『言行錄』卷下, p.673 재인용: 張循, 「狂者之言與狷者之態——顔元的學術分裂與淸初士人文化的兩個風勢」,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1卷, 2021.01, p.74.

(利)로써 천하를 구제하지 못하면 사람이라 일컬을 수 없다."[22] 라며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주장하였다.

(3) 창의적 정신 제창

세 번째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염무는 일찍이

> 명대인들이 저술한 서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若有明一代之人, 其所著書無非盜竊而已.)[23]

라고 명대 학풍의 폐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 반드시 옛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으나 후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규명해야 한다.(人之所未及就, 後世之所不可無, 而後爲之.)[24]

라는 창의적인 학문 태도를 강조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구습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학문 태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원(顔元) 역시 이러한 고염무의 주장에 대해

> 학설을 세우되 반드시 먼저 시비를 논해야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立言但論是非,…不必附和雷同也.)[25]

라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으며, 당견(唐甄) 역시

> 말이란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해야 한다.(言, 我之言也.)[26]

라고 주장하며 옛사람들에 대한 답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훗날 그가 남긴 『잠서(潛書)』가 황종희(黃宗羲)의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과 함께 천하에 이름을 떨

---

22) 中國實學研究會, 『實學文化與當代思潮』,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2.01.: 第16章 淸初經世致用思潮 (1) 經世致用思潮的一般特徵 "不能'利濟天下', 則不得謂之人".
23) 顧炎武, 『日知錄』卷18, 見黃汝成, 『日知錄釋』, 岳麓書社, 1996年版.
24) 顧炎武, 『日知錄』卷19.
25) 顔習齋, 『顔習齋先生言行錄』卷下, 學問第20.
26) 唐甄, 吳澤民 注解, 『潛書·潘序』, 中華書局, 2009.07.

친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4) 실사구시 태도 강조

끝으로 지식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조사와 연구를 중시하여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강조하였으니, 류헌정(劉獻廷)은 구주(九州)의 땅을 밟으며 산천의 지세를 살피고 잊혀져 버린 유적을 찾아 천하의 호걸들과 교류하는 한편, 각 지방의 풍속을 살피고 참고하여 학술 연구에 반영한 결과 학계의 대학자가 되었다.[27] 고염무 역시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어『천하군국이병서(天下郡國利病書)』와『일지록(日知錄)』등과 같은 서적을 저술하였으며, 그는

> 무릇 유람을 하면서도 서책을 옆에 끼고 다녔으며, 변방에 이르러서는 늙은 병사나 퇴역 병졸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평일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면 저자거리에 묵으며 틀린 내용을 다시 교정하였다.(凡先生之游, 載書自隨, 所至阨塞, 卽呼老兵退卒詢其曲折, 或與平日所聞不合, 則卽坊肆中發書而對勘之.)[28]

라고 하니, 구체적인 상황묘사를 통해서 사실적 연구를 위하여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지리 연구로 명성을 떨쳤던 고조우(顧祖禹) 역시

> 배와 수레가 다니는 곳이면 반드시 들려 성곽을 관람하고 산천을 측정하였다. 또한 고개와 나루를 물을 때도 군졸을 가리지 않았고, 간혹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다른 점을 비교하고 조사하였다.(舟車所往, 必覽城廓, 按山川, 稽里道, 問關津, 以及商旅之子, 徵戍之夫, 或與從容談論, 考核異同.)[29]

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사구시 태도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얼마나 널리 성행하였는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이외에도 당시 지식인들이 연구하는 범위와 대상은 정치, 경제, 군사, 국가, 민족, 법률, 교육, 지리, 풍속, 인정, 자연과학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였다.[30] 이와 같은 학풍은 육세의(陸世儀)의『論陸世儀的經世理學』에도 잘 드러나 있다.

---

27) 劉獻廷撰,『廣陽雜記·劉處士墓表』, 中華書局, 1997.12.: 脫身歷九州, 覽其山川形勢, 訪遺佚, 交其豪傑, 觀其土俗, 以益廣其聞見, 而質證其所學.
28) 全祖望,『鮚埼亭集·亭林先生神道表』, 商務印書館, 2018.08, p.100.
29) 顧祖禹·施和金·賀次君,『讀史方輿紀要·敘』, 中華書局, 2005.03.
30) 趙爾巽等撰,『淸史稿』, 卷480, 中華書局, 1998.06.

지금의 학자들은 육예(六藝)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하천, 수로, 병법 등을 비롯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今人所當學者, 正不止六藝, 如天文、地理、河渠、兵法之類, 皆切於用世,口不可不講.)[31]

라고 하였으니, 언급한 내용에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과 범위가 이미 이학(理學)의 범위를 크게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치부관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 엄격하게 구분된 신분사회로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 계층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신분 계층은 명대 상업의 발전과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에 힘입어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단지 사회적으로 조연의 입장에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입장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후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게다가 상인의 신분에 내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사회적 기능 역시 중시되어 상인의 신분과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시장경제가 발전했던 강남지역과 휘주(徽州) 지역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상업의 발달과 함께 큰 부를 축적하게 상인들은 단순히 상업에 종사하면서 사대부의 풍격을 모방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대부와의 융합을 통해 내적 기질까지 수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치부 관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 직업의식의 변화

명대 이후 경세치용론의 대두와 함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을 통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윤리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인들은 "군자는 의(義)를 구하고, 소인은 이(利)를 구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업은 어디까지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말업으로 천시하는[32]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

31) 武才娃,「論陸世儀的經世理學」,『中華文化論壇』. 2005.01, p.95.
32)『論語·里仁篇』: 子曰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더욱이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였던 까닭에 일반적으로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길쌈을 하는 전통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일찍이 《亢倉子》에서는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 남자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입을 옷이 있고, 여자는 밭을 갈지 않아도 먹을 음식이 있으니, 이는 남녀가 자신의 솜씨를 통해 서로 돕기 때문이다.(男子不織而衣, 婦人不耕而食, 男女貿功, 資相爲業.)[33]

라고 하였고, 명대 마일용(馬一龍)은『농설(農說)』에서

>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며, 곡식은 백성들의 하늘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를 낳아 사람들이 그 힘을 먹는 것이다.(農爲治本, 食乃民天, 天畀所生, 人食其力.)[34]

라고 하였다. 또한 후에 서광계가 이 말을 인용하여

> 임금은 백성을 중히 여기고, 백성은 곡식을 하늘로 삼기 때문에 곡식은 농업의 근본이며, 농업은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君以民爲重, 民以食爲天, 食以農爲本, 農以力之功.)[35]

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농업이야말로 백성들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경시하는 '중농경상(重農輕商)'정책[36]을 실시함으로써, 말업에 속하는 상인들의 과거시험 응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명초의 홍무제는 몽골족을 몰아낸 후 홍무 14년(1381) 농민의 집에서는 비단옷을 입도록 하였으나 상인의 집에서는 비단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등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며 상업에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37] 하지만 홍무제가 사망한 이후 상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후대 황제들에 의해 대부분의 규제도 사라지게 되었다.[38]

---

33) 尹喜,『陰符經關尹子亢倉子·農道第八』, 上海古籍出版社, 1990.10.
34) 馬一龍,『農說』, 東南大學出版社, 1989.
35) 徐光啓,『農政全書』卷2.
36) 유가에서는 국가는 물론 집안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재물보다는 예를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겼으며, 재물의 많고 적음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를 구하고자 하지 않았다. '농상(農桑)을 최고로 치며, 상고(商賈)를 그 다음, 그리고 도적을 말단으로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재물을 폄하하고 배척했던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살펴볼 수 있다.
37) 常文相,「明代商人的法權地位」,『古代文明』, 第7卷 第4期, 2013.10, p.88.

게다가 명대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동안 관념적으로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천하게 여겨져 왔던 상업이 본업 가운데 하나로 중시되면서 직업과 그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역시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진이근(陳以勤)의 상소문에 잘 묘사되어 있다.

> 백년 이래로 말업(末業)이었던 상업이 크게 일어나 놀고먹는 나태한 습성이 만연하여 전답은 잡초와 푸성귀만 가득하고 집집마다 쌓아둔 곡식이 없어 세금을 아무리 독촉해도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百年以來, 末利大興, 游惰成習, 田多汙萊, 數口之家室無余蓄, 重以急徵橫斂, 愈不堪命.)[39]

라고 한 내용을 통해서도 상업에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농촌사회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상업을 쫓는 일면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40] 특히 농업을 포기하고 상업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문 역시 그 지위와 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전대미문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명대 사료를 통해 볼 때, 대체로 홍치 연간에는 세신(世臣)이, 정덕 연간에는 내신(內臣)이, 가정 연간에는 상인이, 그리고 융경(隆慶)과 만력 연간에는 유협(游俠)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41] 이 가운데서도 특히 치부 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가정 연간에 상인들의 신분적 상승과 함께 직업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치부관의 변화

상술했다시피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사농공상'이라 하여 엄격하게 신분적 제한을 두고 상업을 천시했던 까닭에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높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통사회에서 치부에 대해 완전히 배척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역(易)'에서

---

38) "명나라의경제", 『위키백과』, 2023.11.07.,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B%82%98%EB%9D%BC%EC%9D%98_%EA%B2%BD%EC%A0%9C
39) 張萱, 『西園聞見錄』, 32卷勸農.
40)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05, p. 562.
41) 陳寶良, 「明代的致富論——兼論儒家倫理與商人精神」,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2004.11, p.58.

숭고한 것은 부귀만한 것이 없다.(崇高莫大乎富貴.)[42]

고 한 말이나 공자가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바이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43]

라는 말을 남긴 것을 볼 때, 성인의 마음도 일반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의이생리(義以生利)'나 『국어(國語)』의 '의자이지본(義者利之本)'이라는 말을 보건대, 이익 추구에 대하여 단순히 부정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구별되는 것은 재물을 어떻게 얻으며, 또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의'에서 벗어난 '이'를 경계하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44]

중국에서 유가사상이 한대 이후 역대 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명대 이르러 경제의 발전과 경세치용 학풍이 만연하게 되자 상인들은 유가적 전통 관념 속에서 상업 활동과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자신들의 의식 세계에 유가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대부 계층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대부 계층의 지식인들이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유취고(棄儒就賈)' 현상이나 상인과 사대부를 구분하지 않는 '사상불분(士商不分)'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명대 상인들에게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은 상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통로를 열어 준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만력 13년(1585)에 '상적(商籍)'이 회남(淮南)과 회북(淮北)에 정식으로 설치되고, 15년 뒤에는 양절(兩浙)과 산동 임청(臨淸)에 염상(鹽商)의 자제들을 위한 상적을 설치하자 상인들은 보다 쉽게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상적의 설치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관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상인들은 과거를 통해 '신사(紳士)'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인을 천시해오던 기존의 사회적 시각을 타파하는 동시에 명예와 부를 약속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상인에게 있어 과거시험에 대한 참여가 비록 신분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과거시험을 통해 관계에 나가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직을 돈으로 사는 연납(捐納)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연납을 통한 관직은 비록 허직(虛職)이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시험에 비해 출사할 수 있는

42) 『周易·繫辭上傳』, 第11章.
43) 『論語·里仁篇』
44) 김미랑, 『明淸時代 儒商의 經營管理硏究』, 中央大學校 博士論文, 2013.08, p.64.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요역에서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연납제도는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했던 당시 상인들에게 상층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치부 관념 역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부자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선금을 내놓아 구제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와 같은 부자들의 행위는 명대 이후 경세치용 사조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서로 맞물려 부자를 경시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4. 상업윤리의 확립과 경영원칙

1) 상업윤리의 확립

명대 중기에 이르러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상업과 상인을 천시해오던 기존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점차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의'로써 '이'를 추구한다는 사고방식 역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상업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 대응 방안으로 다시 강력하게[45] 주창되었다.

(1) 義로써 利의 추구

중국인들은 "군자는 의(義)를 구하고, 소인은 이(利)를 구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는 '인의(仁義)'를 강조했던 유가의 전통적인 관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대 이후 경세치용론의 대두와 함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을 통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윤리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계집략(沙溪集略)』에서 "청대의 능진(淩晉)은

> …… 상인과 교역을 하다가 간혹 교활한 상인을 만나 수량을 속여 받더라도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상인에게 넘길 때는 결함이나 수량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즉시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 이렇게 신용을 중요시하여 淩晉의 장사는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與市人貿易, 黠販或蒙混其數以多取之, 不屑屑較也, 或僞於少與, 覺則必

45) 김미랑, 『明淸時代 儒商의 經營管理硏究』, 中央大學校 博士論文, 2013.08, p.64.

如其數以償焉. 然生計於是益殖.)[46]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상인에 대한 신용은 상인 개개인의 윤리 의식에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윤리 의식은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으며,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회(善會)나 선당(善堂) 등의 설립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유가윤리에 대한 재검토

명대 이후 경세치용 사조의 대두와 상품경제의 발전은 상인들의 전통적인 유가윤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가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상(五常)'[47]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대략 네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견해가 '오상'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적(五賊)'으로까지 폄하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견해는 '오상'을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중용적인 입장에서 '오상' 가운데 내재된 '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견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장 달리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하늘이 내린 오재(五材)인 까닭에 능히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능히 죽일 수도 있다."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견해는 '오상'에 대한 이성적 분석을 통해 '인', '의 ', '예'를 부정하고 '지'와 '신'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기존의 전통적인 유가 윤리에서 벗어나 상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가의 윤리의식을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명대 당추(唐樞)가 그의 조카와 나눈 대화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어느 날 그의 조카가 찾아와 장사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자, 그가 조카에게 먼저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본이 자기 것인지 아니면 부자에게 빌린 것인지 묻도록 하였다. 이에 조카가 시장을 조사해 보고 돌아와 그에게

46) 張海鵬, 王廷元主編, 唐力行等編, 『明淸徽商資料選編』, 黃山書社, 1985, p.493. [淸]凌應秋撰, 邵寶振校注, 『沙溪集略』, 安徽師範大學出版社, 2018.03.

47) 사람이 언제나 갖추어야 할 5가지 대사로 '仁義禮智信'을 '오상지도(五常之道)'라고 한다.

> 열 명 가운데 여섯 일곱은 부자에게 자본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당추는 자신의 조카에게 부자가 돈이 있다고 하여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잃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믿음을 세워야 하며, 믿음이 서면 네가 부자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부자가 당연히 먼저 너를 찾을 것이다.[48]

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바로 전통적인 유가의 '인의(仁義)'적인 윤리규범과 부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당추는 상인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로 신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른바 신용이란 원래 유가에서 강조한 '오상'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지만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이미 상인의 윤리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상인들에게 있어 상인의 윤리를 어떻게 전통적 유가윤리 정신에 부합시켜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2) 유가사상과 상인의 경영원칙

명대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상인들은 집단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상인들의 집단화는 주로 정부의 세금징수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업종마다 그들만의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당시 상인들은 납부해야 하는 정해진 세금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도 상인들이 고용한 대리인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지방의 관리들은 관행적으로 상인들의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 대리인은 다시 각 업종의 상인들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집단은 점차 단순한 조직과 기능을 벗어나 상인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문인이나 사대부 혹은 민간의 결사단체와는 달리 '의(義)'를 '리(利)'의 근본으로 삼아 신의를 중시하였는데, 집회에서 신분의 서열에 따라 좌석을 정하는 것이 전통사회의 관례였다면 이들 상인집단에서는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당시 상인윤리와 기존의 전통적 유가윤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각 지역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방(商幫)'을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의 경영이념은 여전히 '성신'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가적 전통사상을 고수하였다. 그렇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상업적인 경영원칙

48) 李樂, 『連續觀察日記』卷9, 上海古籍出版社. 1986, p.745.

은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는 유가사상과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인간 중심의 경영

중국의 전통적인 유가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자 만물의 근원이라는 생각이다. 즉 인간은 우주의 핵심이자 만물의 영장으로써 모든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孔子는

> 하늘과 땅에서 받은 만물의 성품 중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子曰 天地之性, 人爲貴.)[49]

고 하였고, 孟子는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君主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50]

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유가적 전통은 시장경제가 발달했던 명대 이후 상인들의 경영이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사람의 역할을 중시하여 인치(仁治)를 주장한 유가의 문화적 전통은 명대 상인들의 인재 선발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유가의 '화목(和睦)'을 중시했던 명대의 상인들은 특정한 어느 개인보다 먼저 구성원 간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격을 존중하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 등을 제공하였다.

(2) 근면 검소의 경영

일찍이 『상서』에서는 검소함을 강조하여 "나랏일은 부지런하고 집안일은 검소하게 한다."고 하였고, 『좌전』에서는 근면함을 강조하여 "사람의 삶은 근면한 데 있으니 근면하면 모자람이 없다."고 하였다. 공자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몸소 체험

---

49) 『孝經·聖治章』
50) 『孟子·盡心章句下』第14節.

하고 힘써 실천하며 평생 근면해야 한다."[51]고 하여 실천과 근면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면과 검소함을 강조한 유가의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발전한 상인들의 경영원칙은 명대 이후 지식인들의 문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명대 상인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사조제(謝肇淛)가 저술한 『오잡조(五雜俎)』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 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에서 신안(新安)을 꼽을 수 있고, 강북에서는 산서(山西)를 꼽을 수 있다. 신안의 큰 상인 가운데는 어업과 염업(鹽業)으로 백만금에 이르는 자들이 있었고,…… 산서에서 어떤 이는 소금 장사로, 어떤 이는 행상으로, 어떤 이는 농사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유함이 신안보다 더 심하였다. 신안의 사람들은 사치스럽지만 산서의 사람들은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신안 사람들은 衣食을 검소하게 하여 멀건 죽과 소금에 절인 나물로 기쁘게 배를 채운다.(富室之稱雄者, 江南則推新安(注:治所在今安徽歙縣), 江北則推山右(注:山西). 新安大賈, 魚鹽爲業, 藏鏹(注:錢)有至百萬者, 其他二三十萬, 則中賈耳. 山右或鹽, 或絲, 或轉販, 或窖粟, 其富甚於新安. 新安奢而山右儉也. 然新安人衣食亦甚菲嗇. 薄靡鹽薤. 欣然一飽.)[52]

이 문장에서 얼핏 보기에 산서상인들은 검소한 반면 신안상인은 사치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신안 상인들의 생활 역시 검소하고 소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고염무의 『조역지(肇域志)』에도 보인다. 즉

> 신안 사람들의 근검과 절약은 천하의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천하에서 으뜸으로 친다. ……비록 한가롭게 글을 읽지만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날 때 그들이 입는 옷은 누추하기 그지없어 짧은 베옷이 정강이에 이르고 다해진 짚신을 신고 다닌다. 또한 비록 손에 우산은 들지만 가마와 말은 아껴 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천만금을 지닌 집안의 자손들이다.(新都勤儉甲天下, 故富亦甲天下.……青衿士在家閑, 走長途而赴京試, 則短褐至, 芒鞋跣足, 以一傘自携, 而吝輿馬之費, 聞之則皆千萬金家也.)[53]

라고 한데서 신안 사람들의 검소함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3) 신용 중심의 경영

---

51) 高建立, 「明淸之際士商關係的滲透與商人倫理價値觀的塑造」, 『江漢論壇』, 2000.01, p.56.
52) 謝肇淛, 『五雜俎』 地部2, 卷4, 中華書局, 1959, p.108.
53) 張海鵬, 王廷元主編, 唐力行等編, 『明淸徽商資料選編』, 第819條, 黃山書社, 1985, p.258.

명대 이후 근면함과 검소한 생활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신용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데, 이것은 중국의 유가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용을 의미하는 '성신(誠信)'개념은 송대 정주이학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유가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덕목이자 유가적 윤리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찍이 이에 관해『중용』에서는 "성(誠) 그 자체가 하늘의 도이다.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54]고 하였고,『대학』에서는 "마음은 바르게 하고 뜻은 참되게 한다."고 하였는데, 공자 역시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55]고 하여 신용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가의 윤리적 덕목에서 출발한 '성신'사상은 상인의 규범과 융합되면서 '인도(仁道)'에서 '상도(商道)'로 가는 실천적 행위이자 실천 방법으로써 상업 활동에서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신용을 중시하던 상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휘주상인 오남파(吳南坡)는

> 다른 사람은 사기를 쳐서 돈을 벌지만 나는 신용을 지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켜 남을 속이지 않는다.(人寧貿詐, 吾寧貿信, 終不以五尺童子而飾價爲欺.)[56]

라고 하였으며, 정기현(程其賢)은 열여섯 살부터 여러 지역을 돌며 장사를 하였으나 신용(誠信)을 지켜 남모르게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57]

이외에도 상인들은 신용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진상(晉商)은 장사에서 본전을 밑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신용을 지켰으며, 휘상(徽商)도 진상과 마찬가지로 신용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겨 명예를 지켰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원칙을 토대로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인과 점원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미덕으로 삼았던 까닭에 '합명제'라고 하는 명대만의 독특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

54)『禮語·中庸·20章』: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
55)『論語·衛靈公』: 信以成之,『論語·爲政』: 君子哉,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56) 王祥·林緖武,「論明淸時期徽商的誠信觀」,『安徽教育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3.02, p.41.
57) 趙毅·張明富,「傳統文化與明淸商人的經營之道」,『東北師大學报(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1998.01, p.28.

5.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명대 상인들의 치부관을 중심으로 그 이념적 배경과 변화 과정을 짚어 보았다. 명청대 시기는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자 중국 역사상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58] 또한 도시화와 시장의 형성, 농산물의 상품화와 인구의 대량 이동 등으로 인한 상업의 발전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농공상의 전통적인 사민론에서 벗어나 신사민론에 기인하는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상인의 지위 격상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치부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상업은 필요에 따라 '휼상(恤商)' 등으로 이완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천상(賤商)'이라던가 '폄상(貶商)'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기본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59] 그러나 명대 이르러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명대 흥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경세치용의 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세치용 사조는 당시 정주이학을 뛰어넘는 이념의 혁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인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치부 활동을 인정하는 '농상호리론(農商互利論)', '신사민론(新四民論)' 등의 주장은 명대 중기 이후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치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신상이라는 새로운 신분 계층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다.

명청대 시기의 상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나 '부'에 대한 새로운 의식 세계를 만들어나갔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의'를 중시하고 '이'을 경시하던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의리관(義利觀)'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유가의 질서에서 벗어나 장사에 나서는 사대부들이 등장하는 사회적 현상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유가에 뿌리를 둔 전통적 윤리관이 여전히 당시 사회의 전반에 깊게 작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의식적인 측면에서 명대의 상인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비록 이익을 추구하는 것

58) 민혜란, 「'票號'를 중심으로 살펴본 산서성 문화 관광의 배경 및 현황」,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第41輯, 2009.04, p.345.
59)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05, p.556.

이 당시 상인들의 주요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상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이상은 “천하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는다(以天下爲己任).”[60]는 주자의 말처럼 상업적 활동을 통해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은 천하의 흥망에 대한 유가의 강한 사명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금성 외,『명청시대사회경제사』, 도서출판 이산, 2007.
顧炎武,『日知錄』
顧祖禹·施和金·賀次君,『讀史方輿紀要·叙』, 中華書局, 2005.
凌應秋 撰, 邵寶振 校注,『沙溪集略 安徽師範大學出版社』, 2018.
唐 甄, 吳澤民 注解,『潛書·潘序』, 中華書局, 2009.
董志先·王志宇,『博學智慧叢書: 好學名文』, 白山出版社, 2009.12.
劉獻廷 撰,『廣陽雜記·劉處士墓表』, 中華書局, 1997.
馬一龍,『農說』, 東南大學出版社, 1989.
『明史』, 卷232, 中華書局, 1974.
徐光啓,『農政全書』卷2.
顔習齋,『顔習齋先生言行錄』卷下, 學問第20.
梁啓超,『中國近三百年學術史』, 東方出版社, 1996.
王廷相,『王廷相集』, 中華書局, 1989.
尹 喜,『陰符經關尹子亢倉子·農道第八』, 上海古籍出版社, 1990.
李 樂,『連續觀察日記』卷9, 上海古籍出版社. 1986.
張 萱,『西園聞見錄』.
張海鵬, 王廷元 主編, 唐力行 等編,『明淸徽商資料選編』, 黃山書社, 1985.
全祖望,『鮚埼亭集·亭林先生神道表』, 商務印書館, 2018.
趙爾巽 等撰,『淸史稿』, 卷480, 中華書局, 1998.
朱之瑜,『朱舜水集』, 卷5, p.101.
『周易·繫辭上傳』, 第11章.
中國實學研究會,『實學文化與當代思潮』, 首都師範大學出版社.
黃宗羲,『明儒學案』, 卷58上, 中華書局, 1985.

60) 李百藥撰,『北齊書·崔暹傳』, 列傳第22.

<논문>
김미랑,『明淸時代 儒商의 經營管理硏究』,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나선희,「淸代의 상인계층 - 소설 儒林外史의 계층이동모습」,『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第38輯, 2008.
민혜란,「'票號'를 중심으로 살펴본 산서성 문화 관광의 배경 및 현황」,『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第41輯, 2009.
송갑준,「논어의 군자상과 그 현대적 의미」,『대동철학』, 제32집, 대동철학회, 2005.
오만종,「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020.
高建立,「明淸之際士商關係的滲透與商人倫理價値觀的塑造」,『江漢論壇』, 2000.
武才娃,「論陸世儀的經世理學」,『中華文化論壇』, 2005.
常文相,「明代商人的法權地位」,『古代文明』, 第7卷 第4期, 2013.
楊緖敏,「明代經世致用思潮的興起及對學術硏究的影響」,『江蘇省社會科學』, 第1期, 2010.
王 立·宋天宇,「顧炎武經世致用思想成因探究」,『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吉林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第4期, 2010.
王 祥·林緖武,「論明淸時期徽商的誠信觀」,『安徽敎育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3.
張 循,「狂者之言與狷者之態-顔元的學術分裂與淸初士人文化的兩個風勢」,『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1卷, 2021.
趙 毅·張明富,「傳統文化與明淸商人的經營之道」,『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1998.
陳寶良,「明代的致富論——兼論儒家倫理與商人精神」,『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2004.

<기타자료>
동림당,『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F%99%EB%A6%BC%EB%8B%B9 [2023.11.07.]
명나라의 경제,『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B%82%98%EB%9D%BC%EC%9D%98_%EA%B2%BD%EC%A0%9C [2023.11.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經世致用, 致富觀, 心學, 實事求是, 紳商
	영문	Jingshizhiyong, View of Richness, Xinxue, Shishiqiushi, Shenshang

A Study on the Merchant's View of Richness Influenced by the Trend of Jingshizhiyong Thought : Based on Ming and Qing Dynasties

Kim Mi-Lang · Im Jin-Ho

China has traditionally been a class society with strict divisions between 'scholar, farmer, artisan and merchant'. The merchant class who engaged in commerce was in a low social status position. However, this strict social class underwent a major chang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e in the Ming Dynasty and the rise of the trend of Jingshizhiyong. As a result, the merchants, who had been in a position of expanding their scope from a merely supporting role in society, later clearly revealed their role by newly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through various soci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mid-Ming Dynasty, changes in perception of wealth have been widely accepted in Chinese society as social changes and interests at that time have coincide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new class of status. Therefore, at the same time as the status of merchants rose in society as a whole, it was an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idea of looking at the rich in the past and change new perceptions. In addition, as the perception of commerce has changed significantly, social functions have also attracted attention, and the status of merchants has risen.

저 자	제1저자	김미랑 / 金姜娘 / Kim Mi-Lang				
	교신저자	임진호 / 任振鎬 / Im Jim-Ho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10.	게재확정일	2023.12.14.